긴장감 넘치는 서킷서 운전습관 고치고 스피드 즐기고

르포 | 강원도 인제 '현대 드라이빙 아카데미' 가보니

신형 아반떼, 스팅어 3.3T 등 준비
장애물 회피, 스티어링휠 잡는법 등
초보부터 전문가까지 단계별 교육
개인별 잘못된 운전습관 교정도

지난 8일 강원도 인제 스피디움에서 진행된 '현대 드라이빙 아카데미' 참가자들이 트랙을 주행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묘한 긴장감과 짜릿함이 공존한다.'

현대차그룹이 10일부터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인제 스피디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현대 드라이빙 아카데이'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이같은 느낌을 받았다.

자동차 운전자라면 누구나 속력을 높이고 짜릿한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서킷을 경험하고 싶어한다. 여기에 주행 연수를 앞두고 있는 초보 운전자들은 꽉 막힌 도로에서 교육을 받는 게 부담스럽다.

그러나 '현대 드라이빙 아카데미'에서는 운전의 모든 갈증을 해결하기 충분했다. 전방 충돌 상황에서 급제동하며 장애물을 회피하거나 정교하게 스티어링휠을 조작하는 등 평소 운정하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었다.

'현대 드라이빙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기초 교육(1단계), 스포츠 드라이빙 입문 교육(2단계), 스포츠 드라이빙 심화 교육(3단계), 전문가 수준의 최상위 드라이빙 교육(4단계)으로 단계별로 운영된다.

기자는 인제 서킷 주행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어 2단계 교육을 체험했다. 서킷을 직접 주행하며 스포츠 드라이빙의 기본기를 배우는 2단계는 ▲정교한 스티어링휠(운전대) 테크닉 및 브레이크 컨트롤을 경험하는 '게이트 슬라럼 & 타깃 제동' ▲급격한 스티어링휠 컨트롤 및 차체 제어 장치 중요성 교육인 '연속구간 긴급회피' ▲고속 주행 시 회피제동을 통한 위급상황 탈출 교육 '고속 슬라럼 & 고속 회피제동' ▲인스트럭터 선두 주행을 통한 레코드 라인 및 서킷 주행 방법 교육 '서킷 주행' ▲인스트럭터 차량에 동승해 서킷을 경험하는 '서킷 택시' 등으로 구성됐다.

이론 교육에서는 주행전 필수사항인 시트 포지션과 스티어링휠 잡는법, 가속·브레이크페달 밟는 법, 주행중 운전자의 올바른 주행 방법과 시선 처리 등을 설명해 준다.

이론 교육을 마친 뒤에는 '고속 짐카나'와 '긴급 제동 및 회피' 기술을 배울 수 있었다. 차량은 현대차 벨로스터 1.6 터보와 기아차 K3 GT였다. 204마력으로 레이싱 트랙을 달리기에 적합한 모델이다.

고속 짐카나는 일직선으로 세워진 러버콘(플라스틱 원뿔 구조물) 사이를 시속 50~70㎞ 안팎의 속도로 지그재그로 빠져 나가는 기술과 전방 구조물 발견 시 긴급 제동하며 회피 후 빠져나가는 방법을 배웠다.

이어진 '모터카나'에서는 직선과 코너링, 회전구간, 주행중 차선 변경 등을 경험할 수 있었다. 특히 이곳은 두 개의 트랙을 마주보게 설치해 두 명의 운전자가 대결을 펼칠 수 있어 또다른 즐거움을 준다.

이후 본격적인 서킷 주행으로 이어졌다. 서킷 주행은 차량 6대가 선두 인스트럭터를 따라 주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초 두 바퀴는 인스트럭터의 코스 설명을 들으며 주행했다. 이후 6대가 위치를 바꾸며 서킷을 빠르게 주행했다. 특히 서킷 주행에서는 인스트럭터가 운전자 개인별 잘못된 운전습관과 고속 주행시 코너링에서 무게 균형을 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차량에 배치된 무전기를 통해 설명해줬다.

인스트럭터의 설명을 듣고 난 뒤 이어진 주행에서는 속도를 높여 빠르게 가속해도 안정적으로 주행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3시간이 넘는 2단계 교육에 참여하면서 초보운전자는 파워풀한 드라이빙을 즐기는 운전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인스트럭터는 "오늘 체험한 코스는 일반 도로에서 안정적인 주행과 긴급 상황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진행됐다"며 "안전운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현대·기아차로 서킷에서의 '펀 드라이빙'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현대·기아차의 기술은 해외 브랜드와 견줘도 손색없을 정도로 성장했다"며 "일반인이 주행을 즐기는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 드라이빙 아카데이'에서는 현대차 ▲신형 아반떼 ▲벨로스터 1.6T ▲i30 N 라인과 기아차 ▲K3 GT ▲스팅어 3.3T, 제네시스 브랜드의 ▲G70 3.3T를 체험할 수 있다. 참가비는 레벨에 따라 5만~60만원 수준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올해 춘향 진의 영예를 안은 황보름별씨가 부상으로 제공되는 티볼리 열쇠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쌍용차

춘향제 공식 후원 眞에 티볼리 부상

쌍용자동차가 국내 최고의 전통예술 축제 '춘향제'를 공식 후원하는 등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쳐 나간다고 9일 밝혔다.

전라북도 남원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89회 춘향제'는 남원 광한루 일원에서 광한춘몽을 주제로 개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2년 연속(86~87회) '전통예술분야' 전국 1위에 선정된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로, 매해 새로운 재미와 감동을 선사함으로써 호평 받고 있다.

가장 한국적인 미를 겨루는 '전국춘향선발대회'는 전통과 권위를 보유한 춘향제의 상징적 프로그램이다. 지난 8일 광한루에서 진행된 본선에서는 32명의 참가자가 경쟁을 펼친 결과 황보름별씨(21, 경북 경산)가 춘향 진의 영예를 안았고, 티볼리가 부상으로 제공되었다. /양성운 기자

정숙성·편안함·세련미 '3박자' 다 갖춘 도심형 SUV

르노삼성 'QM6 GDe'
전 트림에 윈드쉴드 글라스 적용
외부 열·소음 차단, 안락함 제공
크롬 장식으로 강렬·세련미 선사

르노삼성 QM6 GDe.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이 가운데 도심형 SUV는 장거리 주행보다 도심을 주행하기 위한 SUV다. 따라서 도심에 어울리는 세련된 디자인, 정숙한 드라이빙 퍼포먼스와 연비, 운전자를 배려한 편안함은 도심형 SUV의 필수조건이다.

르노삼성자동차의 중형 SUV 'QM6 GDe'는 정숙성, 세련미, 편안함등 도심형 모델의 필수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출시 이후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지난 2018년 국산 가솔린 SUV 최초로 누적 판매 대수 2만 대를 돌파했다.

QM6 GDe는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소음은 최대한 줄이고, 승차감은 대폭 개선해 탁월한 정숙성을 자랑한다. 이미 SM6를 통해 충분히 검증된 2.0 GDe 엔진과 일본 자트코의 엑스트로닉 무단변속기가 장착됐다. 2.0 GDe 엔진과 엑스트로닉 무단변속기가 더해져 동급 최강 연비인 리터 당 11.7㎞를 자랑하며, 주행 시의 진동과 변속 시의 충격이 최소화돼 보다 부드럽고 편안한 승차감을 뽐낸다.

또 르노삼성은 전 트림에 윈드쉴드 글라스(전면유리)를 적용해 QM6 GDe의 정숙성을 더욱 높였다. 윈드쉴드 글라스는 전면 유리로의 외부 열 차단율을 높여 쾌적한 실내환경 만들고, 외부 소음 유입을 확실히 차단해 안락한 환경을 제공한다.

또다른 매력은 도심에 어울리는 세련된 디자인이다. QM6 GDe는 기존 SUV가 가지고 있는 투박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도시와 조화를 이룬 디자인을 갖추고 있다. 전면부 라디에이터 그릴은 강인하고 묵직한 라인을 뽐내는게 특징이며, 전면부의 헤드램프와 크롬 그릴은 시크한 느낌을 자아내어 도심에 어울리는 세련미를 제공한다.

곳곳에 배치된 크롬 장식은 안정적인 차체 비율과 함께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 크롬 장식은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 유리창, 사이드 가니시 등 포인트가 필요한 위치에 배치돼 차량의 수평적 균형감과 차체의 윤곽선을 더욱 뚜렷하게 보이게 한다. 19인치 알로이 휠은 더욱 강렬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선사한다.

또 첨단 기술과 각종 편의사양을 탑재해 도심속 주행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QM6 GDe에는 ADAS 옵션을 선택 적용할 수 있다. ADAS 기술은 사고 발생을 사전에 감지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기술이다. '차선이탈 경보시스템', 과 '긴급 제동 시스템', '전방추돌 경보 시스템' 등도 QM6에 적용돼 운전자의 편안하고 안전한 운전을 돕는다.

/양성운 기자

폴크스바겐 '아테온' 13일부터 고객 인도

이달 한달간 13% 할인 프로모션

자가 인증을 완료한 폴크스바겐이 실적 반등을 예고하고 있다.

폴크스바겐코리아는 지난 8일 2019년형 아테온의 자가 인증 완료와 함께 물량 확보를 마쳤다고 9일 밝혔다. 아테온은 13일부터 순차적으로 고객들에게 인도될 예정이다.

폴크스바겐은 자가인증 지연에 따른 물량부족으로 올해 실적 부진을 면치 못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은 지난 4월 단 한 대의 차량도 판매하지 못했다. 이 같은 사태는 예고된 것으로 지난 1월 404대, 2월 62대, 3월 8대를 판매하는데 그치는 등 감소세를 이어왔다.

2019년형 아테온의 출고가 늦어진 배경에는 지난 2월부터 독일 본사에서 자가 인증제도를 도입한데 있다. 폴크스바겐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인증 절차를 진행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렸다는 설명이다.

폴크스바겐은 현재 아테온 모델로만 상반기 판매 전략을 세운 상태다. 2019년형 아테온은 13일부터 소비자에게 인도를 시작한다. 이에 폴크스바겐은 장기간 기다려준 고객들을 위해 아테온을 4000만원 중반 대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5월 스페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5월 한 달 간 2019년형 아테온을 구매하는 고객 대상으로 현금, 할부 계약 모두에 대해 13%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밖에 기존 아테온 고객을 대상으로 한 총소유비용 절감 프로그램인 '트리플 트러스트 프로그램'이 그대로 지원된다. /정연우 기자 ywj964@